
SeMA

Press Release Ver. 1

2018.01.18.

홍보담당 김채하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홍보담당 조우리
T. 02-2124-8979
E.mail. wcho@seoulbiennale.com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semapress PW:sem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1차 보도자료

행사명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전시기간	2018-09-06 (목) ~ 2018-11-18 (일) 총 74일
개막식	2018년 09월 05일 (수)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관
공동기획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장다울, 홍기빈, 서울시립미술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소개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는 2018년 9월 6일(목)부터 11월 18일(일)까지 총 74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전관을 포함한 서울 각지에서 열린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짝수 해마다 열리는 서울시의 대표적 미술행사이자 서울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주목해 왔다. 비엔날레는 올해 기존의 1인 체제의 감독 기획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하. 콜렉티브)들과 함께 다중지성의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예술·경제·환경·정치·사회 등의 폭 넓은 분야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획을 통해 사회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만들고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열린 나눔의 장을 목표하고 있다.

□ 콜렉티브 소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총괄할 콜렉티브는 △김남수(Nam-Soo Kim) 문화비평가(Culture Critic), △김장언(Jang Un Kim) 독립큐레이터(Independent Curator), △임경용(Kyung Young Lim) 더북소사이어티 대표(Director, The Book Society), △장다울(Daul Jang)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Climate & Energy Team Leader, Greenpeace) △최효준(Hyo-Joon Choi) 서울시립미술관 관장(Director, Seoul Museum of Art), 그리고 △홍기빈(Gibin Hong)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Director,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이상 총 6인)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추천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택되었다. (가나다 순)

상기와 같이 선정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콜렉티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기획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불안과 의문이 팽배한 현 사회적 풍토 속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찰하고 동시대 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특정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듯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학제적 협력을 통해 동시대의 삶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제시하는 '아직은 아니지만(Noch Nicht), 이미 보이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적 가치들을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한다.

□ 콜렉티브 구성원 약력

○ 김남수 (문화비평가)



무용평론가로 시작하여 미술계에 입문한 연구기획자이다.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원, 2011년 (재)국립극단 선임연구원을 지냈고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아카이브팀장 및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했다. 전시 <오픈댄스: 달리는 늑대들>(백남준아트센터, 2010) <고래 - 시간의 잠수자>(국립극단, 2011) <백남준 그루브_흥>(세종미술관, 2015) <하늘 본풀이>(자하미술관, 2017)를 기획했으며, 출판 활동으로 <시간의 잠수자, 지금 생각하기> <백남준의 귀환>(공저), <세계신화여행>(공저), 비평집 <고함> 등이 있다.

○ 김장언 (독립큐레이터)



미술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했고, 월간 『아트』지 기자(2000), 대안공간 풀 큐레이터(2001-2002), 안양공공예술재단 예술팀장(2006-2007), 7회 광주비엔날레 <제안전> 큐레이터(2008), 계원예술대학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기획2팀장(2014-2016) 등을 역임했다. 큐레토리얼 프로젝트로 <시장의 세계>(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소행성 G>(협업 김소라, 최춘웅, 이주나, 공주시 금성배수장, 2013), <픽션워크 -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2), <박이소 - 개념의 여정>(공동기획,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1), <Mr. Kim과 Mr. Lee의 모험>(연출 정서영, LIG 아트홀, 서울, 2010), <나눔 - 불법적인 것을 위한 실험>(플랫폼 2009, 기무사터, 서울, 2009) 등이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김현진, 양혜규, 이주요와 함께 우적(Friendly Enemies) 동인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임민욱, 프레데릭 미송과 피진 컬렉티브(Pidgin Collective)로 활동했고, 2009년에 설립한 독립적 동시대 미술 실험실인 '노말타입'을 2013년까지 운영했다. 저서로 비평집 『미술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현실문화연구, 2012)가 있다.

○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영화이론과 영화 프로듀싱을 공부했다. 2007년부터 소규모 출판사인 미디어 버스를 운영하며, 2010년 서점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더 북 소사이어티를 통해 예술도서 및 소규모 독립 출판물을 소개해왔다. ‘책사회’ 총서의 책임 편집자이자 도시의 여러 자율적 움직임을 기록하는 비정기 저널 『공공도큐멘트』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제록스프로젝트>(백남준아트센터, 2015),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공동기획, 2016), <불완전한 리스트>(일민미술관, 2016), <불완전한 리스트, 베이징>(페이퍼로그, 2016) 등 출판과 관련된 전시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사무소에서 기후에너지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을, 유럽에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였다. 정부, 유엔, 싱크탱크에서 일한 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린피스에 합류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이끌어오고 있다.

○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2017년에 부임한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관장(2011-2015),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2009-2011), 전북도립미술관장(2004-2009),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2000-2002), 삼성문화재단 수석연구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원광대학교 순수미술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거쳐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역서로는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반 파 레이스 등 『기본소득』, 스티드먼 존스 『칼 마르크스 전기』 등이 있고, 저서로는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가 있다. 현재 글로벌정치경제 연구소 소장과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 비엔날레 주요 키워드

○ 아직 아니다 - 이미 보인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아직 아니다(Noch Nicht)'를 인간의 희망의 원리로 제시하며 도달 불가능한 소실점과 같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모습이 우리를 미래로 달려 나가게 만드는 희망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는 응당 와야 할 미래이지만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그것이다. 우리가 현실의 진부함에 끌리지 않듯, 우리의 시선은 늘 나타나야 할, 나타날 것만 같은,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원리는 '이미 보인다'로 표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에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더욱 더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붙들려 있게 된다. 이 틈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들을 포착하여 '아직 아닌' 현실이 '이미 보일'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매개자로서 말이다.

○ 뉴 노멀 (New Normal)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사회 경제의 변화상을 포착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이지만, 이는 폭 넓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중층적 차원의 위기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한때 규범적 현실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실성과 정당성이 모두 의심을 받고 있는 명제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기존 질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이며, 그 위기들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도처에서 새로운 규범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이 옛 질서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좋은 삶 (Eu Zen)

'좋은 삶'은 소박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나가는데 몇 천 년 이상의 시간, 문화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준거점의 역할을 해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간 및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모두 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수히 많은 다른 모습의 좋은 삶 속에는 분명히 공통분모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몸과 마음에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욕구와 능력을 하나하나 일깨워 발전시키는 피어나는 삶(Eudaimonia, Flourishing Life)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구불변의 나침반이자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인 '좋은 삶'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새로운 인간의 모습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유작 '첫 번째 인간(The First Man)'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미 지난 세기 후반부터 인류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향한 상상력은 인간의 신체, 성적 정체성을 필두로 한 다양한 정체성,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의 오감과 시공간 지각, 우주와 영원성의 형이상학적 종교적 탐색 등 무수히 다양한 방향에서 펼쳐져 왔다. 우리는 이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생겨난 종래의 인간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상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증후로 보고자 한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라는 디스토피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야 한다. 허무적 상상력이 아닌 변화된 세상에서 속에서 '좋은 삶'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구체적인 사람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정보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시립미술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연락처 Tel 02-2124-8906

관람시간 화~금 10:00-20:00 토, 일, 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1월 1일 휴관
뮤지엄나이트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2:00

홍보 문의: 김채하 홍보담당 큐레이터 (02-2124-8928)

<서울시립미술관>
윤민화 담당 큐레이터 (02-2124-897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조우리 홍보담당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2124-8979)
나기현 홍보담당 비엔날레 코디네이터 (02-2124-8977)

작품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